

2016/17 FW TREND

본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 패션소재역량강화사업 중 『실크융복합 시제품개발지원』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실크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정보자료입니다. (출처: CHIRON)

Step Back/ 과거회상



- 원단 중량감 라이트한 소재 급증, 텍스처 소프트함 강조
- 자연스러운 드레이프(drape)성
- 다크하거나 자연에서 온 tone on tone 컬러
- 입체감, 요철감 강조



- 가을, 겨울 숲의 네추럴한 컬러군, 햇빛에 따라 빛이 바랜듯한 느낌
- 두께가 있으면서 가벼운 원단
- 코트, 벨벳의 믹스매치의 컨버트룩 느낌
- 봉제기법도 과하지 않고 심플함 강조

Simple Harmony/ 단순한 조화



- 원단표면에 은은한 광택감 있는 것이 특징
- 가벼운 소재에 표면 요철감 요구
- 프린팅, 번아웃 등 자연스럽게 패턴이 겹치는 효과
- 자카드 아이템도 다시 재염색, 또는 프린트하여 효과 극대화
- 기하학적 심플한 느낌의 패턴



- 노멀한 느낌의 소재 및 패턴 선호
- 믹스매치 모티브디자인
- 표준화된 제품에서 새로운 것을 더해 변화를 줌
- 과거의 빈티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
- 시간이 흐름으로써 변화가 있는 자연스러움 강조

Artificial intelligence/ 인공 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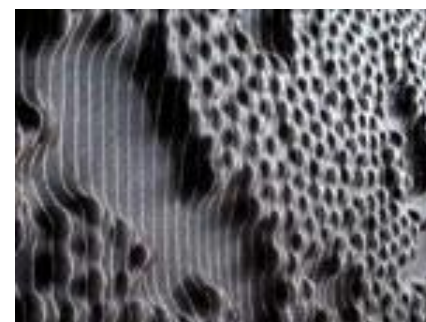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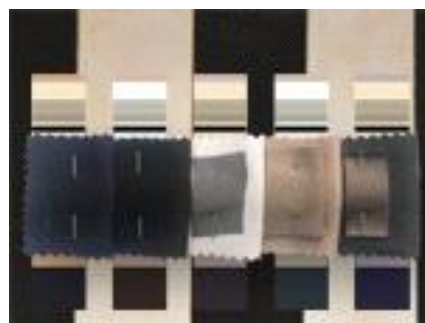


- 여러 가지 원단을 겹쳐 볼륨감 강조
- 서로 다른 원단을 겹쳐 빛을 투영시켜 자연스러운 투영효과 나타냄
- 불규칙성 강조, 블루톤을 매치시켜 햇빛 투영
- 모노크롬화 강조해 금속성 느낌 표현
- 메탈이 산화된 느낌, 원단 표면에 주름 표현



- 빛을 반사해 음영효과 표현
- 미학적인 빅토리아(18c)시대를 꺼내어 재해석해서 풀어냄
- 잔잔한 톤 배치, 강한 컬러 대비, 다크함과 라이트함을 믹스매치
- 타프타 소재, 하드하면서 소프트함을 매치하여 특이성 보여줌

Quite Elegance/ 아주 우아



- 볼륨성 있는 가벼운 오간자
- 블랙+레오컬러 조화, 화이트+다크블루 매치, 클래식한 카멜컬러의 매치
- 워싱(washing)을 해서 부분적으로 느슨하거나 낡은 느낌표현
- 울+타소재 혼방으로 터치감 다르게 표현



- 기하학적 무늬를 배치, 패턴을 서로 바꿔 활용
- 전체적인 옷 한 벌의 원포인트 디자인의 큰 패턴
- 심플하지만 디테일강조, 잔잔하지만 조직감이 있는 원단
- 패미니즘느낌의 패턴들
- 겨울느낌 나는 코튼+실크 소재 사용